

❖ 하박국 2. '두 번째 질문과 두 번째 답변'

➤ 들어가기

지난 시간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의(이스라엘)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데도 하나님은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가만히만 계시는지 질문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들 곧 바벨론을 일으켜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박국 선지자가 미처 예상치 못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금 하나님께 항변하면 질문한 내용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항변) (1 장 12-17 절)

1) 하나님의 답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인들의 침략을 받는다하여도 완전한 사망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12 절)

- 12 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란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과 확신의 근거는?

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②. 그는 거룩하신 분! + 만세전부터 계신 분! + 반석이신 분!

③. 그런 하나님께서 갈대아인들을 일으키신 이유는?

=> 사망(멸망)이 아닌 옳고 그름을 심판! + 경계를 주시기 위함!

- 지혜로운 성도/성숙한 성도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리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함!

-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깨우쳐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경계를 주시는 것이란 사실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

2) 이어지는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호소 (or 불평(e)) (13-17 절)

- 하박국 선지자는 3 가지 질문(불평)을 하나님께 드림!

①.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요? (13 절)

- 곧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에게 고통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른척 하실수 있나? 라는 반문!!

- **그런데** 종종 우리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나? => 하나님은 사랑/자비/공휼이 풍성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을 믿고 사는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혹은 도와주시지 않고 모른척 하고 계실까? 의문이 생기고 자람!!

-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의문들이 생기고 자랄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
- a) 우선은 앞에서 생각했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묵상하고, 내가 겪는 오늘의 어려움과 시험은 결코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주시기 위함이요, 정결한 믿음과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함임을 생각해야 함!
 - b) 이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함! => **고전 10 장 13 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②. 어떻게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요? (14-16 절)

- 우선 ‘바다의 고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는 갈데아인들에게 무참히 죽임당하거나 잡혀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한 말!
- 특히 하박국 선지자는 저들이 ‘낚시’와 ‘그물’과 ‘투망’으로 바다의 고기들을 모두 잡아들여 소득이 풍부해지고, 먹을 것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불평/호소!!

➔ 특별히 여기서 한가지만 코멘트하고 넘어가자!

- 이런 불평/호소를 하기 전에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그 원인부터 파악해야 함!
- 우리는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에서 답을 찾자!
 => 곧 하나님의 백성은 유일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야,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
 => 그런데 그 보호와 다스림이 싫다고 벗어나면,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가 되는 것!!

③.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 (17 절)

- 곧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 한들 그렇다고 **‘그물을 떨고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 갈데아인들의 만행으로 멈추지 않고 무자비하게! 멸망으로! 나타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곧 하나님의 뜻인가요? 불평/호소 한 것!!
- 우리도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들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거나 반복될 때, 이와 같은 질문을 갖지 않나?

3) 위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하박국 선지자는 ‘파수대’와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결단하였습니다. (2 장 1 절)

- 2 장 1 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랴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 ‘파수대’와 ‘성루’ => 적의 침략을 대비해 낮이나 밤이나 항상 깨어 경계를 늦추지 않는 곳!
- 그런 곳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다리고’ + ‘바라보며’ + ‘보리라’ 고 결단!**
 => 곧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받겠다는 결심!
-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기다리는 열심이 필요!!

2.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물음에 두 번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2-20 절)

- 1) 우선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로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목판(돌판)에 명확하게 새겨서 결코 사라지지 않게 하고, 언제든지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3 절)
 - 특별히 2 절,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주목!
=> C.E.V. ‘I will give you my message in the form of a vision’
 - 곧 단순히 음성으로 들려 주신 정도가 아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
 - 또한 3 절 특별히 주목!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 비록 더딜지라도 항상 믿고 기다려야 함!!
- 2)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변치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4 절)
 - 4 절 주목!,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 이 말씀은 ‘하박국’서의 핵심 구절!
 - 곧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심판이 즉시 나타나지 않아도, 혹은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속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 3) 이제 하나님은 갈데아인들의 삶이 어떠할 지? 그리고 열국이 저들을 어떻게 평가할 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5-9 절)
 - 우선 갈데아인들의 삶 (5 절)
 - ①.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음! => 방탕하고 타락한 민족!!
 - ②. 저들의 탐욕은 스올(무덤)과도 같아서 결코 만족함이 없어 여러 나라, 백성들을 침략할 것!
 - 이에 대한 열국의 평가? =>속담으로 평론 + 조롱하는 시로 풍자할 것! (6-9 절)
 - ①. 화 있을진저! = ‘너희들은 결국 망할 것!’
=> Why? 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 빼앗은 것으로 부요함을 즐기!!
 - ②. 결국 빛쟁이들이 갑자기 들이닥치고, 그들이 잠자던 너희를 깨워 괴롭힐 것!!
=> 그러면 너희도 그들에게 털리게 될 것!!
 - ③. 혹시 재앙을 피해 보려고 높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본들, 자기 집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 자들이기에 ‘화 있을 진저!’ = ‘결국 망할 것!!’

➔ 따라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함을 일일이 평가하시지 않아도, 온 세상이 저들의 악행을 보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며 욕하고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4)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갈데아인들의 죄악을 결코 모른척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10-20 절)

1) 먼저 갈데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결정적인 원인은 ‘저들이 영혼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 절)

▪ 10 절 주목! =>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 특별히 ‘영혼에게 죄를 범했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함을 받을 수 없도록 범 죄했다는 것!!

2) 이때 하나님은 저들의 죄를 저들이 쌓은 담과 집, 성이 고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13 절)

▪ 11 절 주목! =>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 곧 갈데아인들이 다른 민족을 짓밟아서 빼앗은 부귀 영화로 쌓아 올린 모든 담과 집과 성들이 하나님 앞에 증언한다는 것!

▪ 그래서 하나님은 12 절에서 ‘피로 성읍을 건설’ + ‘불의로 성을 쌓았으니’ **망할 것이라 선언!!**

- 불의와 죄로 쌓이올린 부와 명예와 자랑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의 열매요 증거만 될 뿐!!!

▪ 따라서 13 절에서 하나님은 저들이 쌓아올린 그 모든 부귀영화는 결국 다 불타 없어질 헛된 수고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심!!

3) 그 결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14 절)

➔ 14 절 주목!,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4)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른 손의 잔’이 저들의 영광을 취할 것이며, 저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행했던 모든 수치와 능욕과 강포를 당하게 될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15-17 절)

5) 끝으로 하나님은 저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신을 찾아가 구해 본들 그것들은 다 쓸모없는 우상에 불과함을 깨달을 것이며, 세상의 참 신은 ‘오직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온 세상이 잠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20 절)

✚ 오늘 내용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나 결단은?

✚ 중보기도 제목나눔